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음악교육 실태

윤 진*

본 연구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음악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음악 프로그램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은 경직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해야하며 둘째, 좀 더 세분화된 단계의 프로그램 운영하여 수준별 수업과 심화 수업, 연계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강의실의 시설과 기자재를 확충하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차원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 주제어: 평생교육, 평생 음악교육

차 례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II.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의 필요성
2. 성인기에서의 음악교육의 가치

III. 연구 방법

- | | |
|---------------|----------|
| 1. 연구 대상 및 기간 | 2. 연구 도구 |
| 3. 자료 통계 처리 | 4. 연구 결과 |

IV. 결 론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토플러는(A.Toffler, 1928)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21세기를 ‘정보화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이전의 시기인 산업 사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식과 정보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며,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 이에 반해 낮아진 정년의 연령과 여가 시간의 증대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사회는 우리들에게 생활양식 뿐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과 태도, 신념 체계를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한된 교육기간 동안, 일련의 교과과정을 학습하는 획일적인 학교교육만으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역동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사회의 사회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이영호, 2004, pp. 12-13). 즉 지식의 수명이 약 4년에 불과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는 달리, 학교는 유연하지 못한 교육과정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7~8년에 한번 바뀌는 교육과정의 변화로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나가기 어렵다.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에 비해 융통성과 시사성, 실용성이 강하여 사회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교육(팀영철, 팀광영, 2001, p. 37)으로 변화가 심한 현대사회에 필요한 교육이다. 평생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 욕구를 충족(권이중 외, 2001, p. 36)시켜주며,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에서 실버 교육으로서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음악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기는 했으나,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간 삶의 한 부분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음악교육의 가치는 현대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1967년 열린 탱글우드 심포지움(Tanglewood Symposium)에서는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음악교육에 대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1998)의 음악 과목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과 11, 12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나뉜다. 고등

학교 2학년 때부터 음악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음악 과목을 선택하면, 좀 더 심화된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있어야 할 음악이 개설되지 않거나,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교사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또한 심화 선택 과목으로 되어있는 음악 이론이나 전공 실기, 실내악 등은 우리나라 일반 고등학교의 여건에서는 시행되기가 어렵다. 이처럼 음악적 체험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음에도 실제 학교 현장의 여건상 학생들은 충분한 음악적 체험을 얻지 못한 채 학교 교육을 마치는 경우가 많다.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학생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음악적 성장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는 제도 교육을 마친 성인들에게도 다양한 음악교육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성인을 주된 교육 대상으로 삼는 대학은 충분한 음악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읽기, 쓰기와 같은 기초 문해교육(文解教育, literacy education)에서 시작된 한국의 대학 평생교육은 현재 300여 개의 대학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음악 프로그램 또한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개설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많은 음악 프로그램들은 이와 같은 양적인 팽창에 비해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이라든지, 강사의 자질문제, 학습 환경 등 질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6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음악과 관련된 개설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음악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음악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의 필요성

평생교육의 개념이 음악교육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으로 이 개념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 당시 미국의 음악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현대음악 프로젝트(CMP: Contemporary Music Project), 예일 세미나(Yale Seminar), 탕글우드 심포지움 등을 통해서였다(김화수, 1996, p. 20). 그 중에서도 탕글우드 심포지움은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와 대학에서는 취학 전부터 성인, 평생교육에 걸쳐 적절한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Abeles et al., 1994, p. 30)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평생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필요성은 크게 음악의 미적 가치와 비(非)미적인 가치, 음악 교육으로서의 가치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음악의 미적 가치

듀이(J. Dewey)와 랭거(S. Langer)는 ‘예술을 통하여 인간은 포괄적으로 인생에 관련된 느낌을 재경험하고, 예술을 통하여 인간은 주관적인 진실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즉 예술은 인간의 삶을 반영하며, 인간은 예술을 통해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느낀다.

둘째, 음악을 통한 심미적 경험에 있다. 언어나 문자가 없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예술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해왔다. 인간이 만든 이러한 예술품을 통해서 인간은 심미적 경험을 하게 된다. 심미적 경험은 실용적인 목적을 갖지 않고 통찰력, 만족, 즐거움과 같은 것에 가치를 둔다. 이것은 직접 경험되어 지는 것으로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한다(Abeles et al., 1994, pp. 62-63). 인간은 음악을 통해 이러한 심미적 가

치를 체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체험은 인간 생활을 좀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UNI(Unesco Institute of Education)는 데이브(R. H. Dave)의 주도하에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의 기초 영역”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인간이 평생 동안 교육받고 학습해야 할 기초 지식 영역들로 커뮤니케이션, 시민, 테크놀로지 등과 더불어 예술 영역을 선정하였다. 테이트(M. Tait)과 핵(P. Haack)은 음악이 물리적인 속성과 형식적인 속성, 심미적 속성을 지니며, 이들 속성의 체험이 개인에게 인간 현상을 탐색하고 통찰할 수 있는 기회와 안목을 제공한다고 언급한다(이홍수, 1990, p. 63).

음악의 미적 가치는 음악 교육적으로 중요할 뿐 만 아니라 평생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사람들은 음악적 참여와 미적 체험을 통해 각박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평생교육 기관에서는 정규 과정을 마치고 음악을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은 성인들에게 음악을 듣고 배우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음악의 비(非)미적 가치로서의 평생교육

음악이 인간의 행동과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고대 그리스의 에토스(Ethos)론은 서양 음악과 음악교육에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왔다. 1950년대 말 미국의 몇몇 교육자들이 음악의 비미적 가치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으나, 현대에도 여전히 설득력 있는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음악의 비미적인 가치는 음악 교육의 전이 효과(transfer effects)와 취미로서의 가치, 사회적 가치 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음악 수업이 일반 학습의 능력을 증진시키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월프(K. Wolff)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는 음악 교육이 인지적 기술과 이해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이 같은 결과는 일반 전이, 즉 ‘배우는 방법을 아는 것’이나 특수 전이 둘 다에 적용되어 진다고 하였으며 특수 전이로는 특히 언어예술의 실연(實演, performance)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Hoffer, 1996, pp. 59-60).

둘째, 취미로서의 가치를 들 수 있다. 현대사회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낮

아지는 청년, 주 5일제 근무의 시행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여가 시간이 크게 증가 되고 있다. 음악은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여가 활동으로서 간주되고 있으며(Abeles et al., 1994, p. 73), 음악 활동에 따른 긍정적인 정신적, 육체적 영향은 음악 평생교육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스웨덴 연구자 비그렌, 콜란, 요한슨(L. O. Bygren, B. B. Konlaan & S. Johansson)은 약 13,000명 성인들의 문화적 활동을 조사하여 그 후 8년간의 흔적을 추적한 결과 문화적 행사에 참석하고 책이나 정기 간행물을 읽고 음악을 창작하고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더 낮은 사망률을 가진다는 것을 관찰했다(Hookey, 2002, p. 203에서 재인용). 또한 모차르트의 음악이 태교에 도움이 된다고나 어린이의 정서발달, 심신의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모차르트 이펙트(Mozart Effect)’ 라든지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음악치료 또한 인간이 음악을 통해 다소의 심리학적인 이득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들 수 있다. 코프만(D. D. Coffman)과 애더맥(M. Adamek)은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음악 창작이 노인들의 건강, 삶의 질, 정신적 풍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음악 양상블은 노인들에게 친구를 사귀는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적 발달에 기여하며, 세대간의 음악 활동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음악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Hookey, 2002, p. 203에서 재인용). 메리암(A. P. Merriam)은 음악이 사회에서 행하는 기능에 대하여 논의하고,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정서의 표현, 미적 즐거움, 오락, 감정과 정서의 전달과 통화, 상징적 표현, 사회 통합에 기여 등 10가지로 설명했다(Abeles et al., 1994, p. 82). 이러한 음악의 사회적 기능 중에서 정서(情緒) 표현의 기능과 미적 즐거움, 오락의 기능 등은 많은 성인들이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험이다. 음악이 가지는 이러한 사회적 기능들에서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3) 음악 교육적 입장에서의 평생교육

음악교육에서의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심미적이고 문화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교육적 입장에서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핵과 스미스

(M. V. Smith)는 ‘평생학습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생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부터 평생교육의 전 과정, 활기 있는 교육과 새로운 시각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크리스탈 호수(Crystal Lake)의 아름다움은 지속적으로 신선한 수원을 공급하고 다시 채워 호수 전체로 확산시킨 데에 있었다’라고 언급하면서, 크리스탈 호수가 주는 교훈처럼 교육자는 신선한 교육의 원천과 재료, 견해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제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견지해 새로운 교수법에 의한 도전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성취의 열쇠는 평생 학습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Smith & Haack, 2000, p. 28).

즉 평생교육은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에게 배움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결국 가르치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며 교사들이 다양한 환경과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음악 교육자들에게 평생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교육의 장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자들은 평생학습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둘째는 기술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컴퓨터는 다각도로 수업 중에 활용되고 있으며, 때문에 음악교육자들 역시 시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교육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셋째, 각각의 과목들이 상호간에 유용할 때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듯이 음악 역시 그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교과 과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음악 교육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될지 주변부 과목에 그칠지는 음악 교사에게 달려있다. 넷째, 양질의 교육을 이끌어낸다. 즉 평생 교육을 받는 음악교육자들이 교육자로서 보다 높은 성취감과 깊이를 얻을 수 있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교수법 향상의 질적인 측면은 즉각적으로 학생들의 배움의 질, 학교 음악 프로그램의 질로 연결될 것이다(Smith & Haack, 2000, pp. 29-30).

2. 성인기에서의 음악교육의 가치

성인기의 음악 발전은 음악에 대한 어렸을 때의 긍정적인 경험이 성인이

된 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유년기나 소년기 즉 초기의 음악적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슬로보다(J. A. Sloboda)와 호위(M. J. A. Howe)는 음악 관련 평생교육을 받은 성인들이 종종 음악 활동에 대한 지지적인 환경과 강렬하고 긍정적인 유소년기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음악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던 성인들은 음악 활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보고했다(Hookey, 2002, p. 201에서 재인용). 부모, 형제, 동료, 직업 음악가, 선생님 등은 초기, 그리고 계속되는 음악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타났다. 성인들의 음악 참여는 대부분 공동체 음악단체에의 참여에서 나타나므로 많은 연구들이 단체의 밴드나 합창단과 같은 단체들을 연구했다. 이 연구들은 성인 음악가들에 관한 인구 통계라든지 음악적 배경, 음악적 선호도, 동기 등과 같은 정보와 음악 단체의 상세한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음악경험에 참여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자아표현, 레크레이션, 자기발전, 여가시간의 이용등과 같은 개인적 동기, 둘째 음악에 대한 본질적인 사랑, 자아의 실현, 음악에 대해 좀 더 배우고자 하는 것 등과 같은 음악적 동기, 셋째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친구 되기, 소속감 획득등과 같은 사회적 동기이다. 비록 개인적, 음악적 이유가 다른 것보다 자주 보고 되는 경향이 있지만, 어느 하나만의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Hookey, 2002, p. 202). 게이츠(J. T. Gates)는 음악 참여에 관한 논문을 재조사하여 성인 참여의 다른 수준을 설명하고 참가자들을 구별하는 6종류의 유형학을 제시했다. 이러한 6종류의 참가자들은 장난치는 사람,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사람, 취미 생활자, 아마추어, 초심자, 전문가이다(M. Hookey, 2002, p. 202에서 재인용). 벨즈(M. J. D. Belz)와 홀름퀴스트(S. P. Holmquist), 치오도(P. A. Chiodo)는 연구를 통해 성인 참여자들은 어린시절과 청소년기의 음악참여자들의 확장이 된다고 결론지었다(Hookey, 2002, p. 203에서 재인용). 라르손(P. Larson)도 사례 연구를 통해 음악에 대한 흥미는 생의 초기에 시작되어, 청소년기에 확장되고, 종종 노년기에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Hookey, 2002, p. 203에서 재인용).

멀리(M. A. Mullee)의 연구는 성인교육학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음악교육을 설계한 좋은 예이다. 그녀는 성인 음악교육에 있어서 두 가지 조언을 하는데 첫째, 성인 학습자들이 그들의 배움에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교대로 그들의 생각을 결합하도록 독려하도록 해야 하며 둘째, 성인 학습자들이 배움보다는 경험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성인 학습자들이 서로에게 공급원이 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소규모 그룹 프로젝트와 토론 같은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Hookey, 2002, p. 204에서 재인용). 한편, 마이어스(D. E. Myers)는 젊은이들, 중년들, 노인들 중에서 음악프로그램의 결과를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 결과 마이어스는 학습 속도에서 나이와 관련된 감소에 관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으며, 오히려 노년층에서 노래 멜로디에 대해 더 높은 사후 효과 성취와 만족도를 발견하였다. 게다가 노인들은 낮은 감각적 반응 점수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반면에, 그들은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였다(Hookey, 2002, p. 204에서 재인용).

음악 학습의 과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엘퍼슨(R. Alperson), 첸(H. Chen), 아이리쉬(B. M. Irish), 먼로즈우(A. Monrouzeau) 등과 같은 연구자가 성인들의 음악 교수 학습 과정에 흥미를 갖고 연구하였다. 학습의 과정에 대해 흥미를 가진 연구자들은 보통 데이터 수집에 대해 질적인 접근에 의존해 왔다. 엘퍼슨은 수업을 관찰하고 녹화하였으며,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수업의 교사들과 참가들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첸은 성인 피아노 학습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향상된 음악적 성취에 따라 자아 인식이 자동적으로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성인들이 종종 교사들의 의견에 결정을 맡기며 자발성은 수업 기간동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그는 성인들의 자발성을 육성하고자 하는 교사들은 즉흥적인 것을 수업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Hookey, 2002, p. 204에서 재인용). 아이리쉬는 연구를 통해 성인들의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과 교육을 받은 성인들은 비슷한 반응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Hookey, 2002, p. 204에서 재인용).

성인기는 변화의 과정이다. 육체적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생각의 과정과 생각하는 내용이 또한 변화한다. 성인 발달은 유년기의 의존성에서 성

인기의 자유성으로의 이동하고 사회적 기대에서 내부 목표의 끊임없는 조정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어린 성인들은 중년기, 노년기의 성인들과 다르며, 각각의 그룹은 다른 전망과 삶의 전략을 구체화시킨다. 음악 연구자들은 성인 학습자들의 인지적, 심리사회적 발달이 그들이 무엇을 배울지, 언제 그것을 배울지, 어떻게 배우고자 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많은 연구와 노력들로 판단할 때, 음악교육자와 연구자들은 형식적 교육 외의 음악 평생 교육이 중요한 시도라는 것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Hookey, 2002, pp. 199-207).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서울 소재 6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2004년 1학기 음악 프로그램 수강자이다. 연구대상의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중 일반과정이 있는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일반과정이 개인레슨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은 제외하고 클래스 수업이 있는 6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프로그램 수강에 있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없는, 제한적인 조건이 있는 전문가 양성과 지도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음악적 삶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 대상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6개 대학의 일반과정 음악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2004년 5월 17일부터 6월 9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총 250부 중 202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무응답 설문 2부를 제외하고, 총 200부가 통계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회수율은 80.8%이며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표 Ⅲ-1 참조).

<표 III-1> 연구 대상

학교	과목명	n(명)
단국대	교회 음악 클래스	9
덕성여대	합창	42
상명대	가곡교실, 플루트	15
서울시립대	가곡교실, 하모니카	53
숭실대	교회 음악, 성악	53
이화여대	합창(E.C 코러스)	30
총	9 과목	202

2. 연구 도구

설문지는 크게 개인적 신상, 교육과정, 강사의 자질, 교육과정 운영,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객관식 40문항, 주관식 14문항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III-2 참조).

<표 III-2> 설문지 내용

내용		문항 내용	문항 번호
1. 일반적 사항	1) 개인적 신상	(1) 성별	I -1
		(2) 연령	I -2
		(3) 학력	I -3
		(4) 직업	I -4
		(5) 다른 평생교육의 유무	I -5~ I -5-2
		(6) 강좌의 수강인원	I -6
		(7) 강좌의 편성시간	I -7
	2) 평생교육 참여 이유	(1)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	II -1
		(2) 대학부설기관에 참여한 이유	II -2

<표 III-2> 이어서

내용		문항 내용	문항 번호
2. 교육과정	1) 교육내용	(1) 강의계획서에 따른 수업진행	Ⅲ-1~Ⅲ-1-1
		(2) 강의의 내용	Ⅲ-2
	2) 교육 방법	(1) 강사의 수업방식	Ⅲ-3
		(2) 강사의 수업형태	Ⅲ-4
		(3) 활용매체	Ⅲ-5~Ⅲ-5-1
	3) 만족도	(1) 교육내용의 만족(불만)과 이유	Ⅲ-6~Ⅲ-6-2
3. 강사의 자질	1) 성실도	(1) 강사의 열의	Ⅳ-1
		(2) 수업시간 준수	Ⅳ-2
	2) 자질	(1) 수업에 관한 질문과 도움의 제공	Ⅳ-3
		(2) 흥미와 참여도 유발 위한 노력	Ⅳ-4~Ⅳ-4-1
		(3) 강사의 중요한 자질	Ⅳ-5
4. 교육과정 운영	1) 수강생 선발	(1) 선발 유무	V-1
		(2) 선발조건의 방법	V-1-1
		(3) 선발조건의 필요성 유무	V-1-1-2~V-1-2-2
		(4) 수강인원의 적절성	V-2
	2) 교육시간	(1) 수업시간의 적절성	Ⅵ-1
		(2) 편성시간의 적절성	Ⅵ-2
		(3) 적절하지 않았던 이유	Ⅵ-2-1
		(4) 원하는 강의 시간	Ⅵ-2-2
	3) 교육환경	(1) 교육환경의 제공	Ⅶ-1
		(2) 대학내의 시설 활용유무	Ⅶ-2~Ⅶ-2-2
	4) 교육비	(3) 대학내 시설 활용의 용이성	Ⅶ-3
		(1) 교육비의 적절성	Ⅷ-1
5. 평가	1) 평가	(1) 수강생 평가의 유무	Ⅸ-1~Ⅸ-1-1
		(2) 강사 평가의 유무	Ⅸ-2~Ⅸ-2-2
	2) 교육효과 인식	(1) 학습의욕의 증가 유무	X-1
		(2) 다음에 다시 참여할 의사	X-2~X-2-1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원하는 개설과목	(1) 원하는 개설과목	X-3
		(2) 좋았던 점	X-4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문제점	X-5
		(2) 개선방안	X-6

3. 자료 통계 처리

설문 조사 결과는 SPSS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했으며, 수강생들의 일반적 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백분율과 빈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연령에 따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첫째, 일반적 사항 영역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수강생 은 대학을 졸업한 주부로 86%가 여자였으며 남성은 14%에 불과했다. 참여 하고 있는 강좌의 수강인원은 20~39명 사이가 50.0%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 으며, 40~59명도 35%나 나타났다. 듣고 있는 강좌의 편성시간은 평일 오후 시간대(12~18시)가 83%로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대부분인 평일 오후 시간 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이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평생 교육에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로 '자신의 발전'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대학부설 평생교육 기관을 선택한 이유로는 '강사의 질이 우수해서'라는 대답이 40%를 차지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강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수강생들은 대체적으로 강의의 내용과 방법에 만족하고 있었다. 우선 교육 방법 면을 보면 '강의 계획서에 따라 수업이 진 행되었다'는 응답이 88.5%를 차지해 대체로 강의계획서에 따라 수업이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강의 내용의 이해에 대한 질문에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90% 정도로 대부분이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약 60%의 강사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강사가 사용한 수업 형태로는 그룹 수업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그룹 수업을 통한 이론과 실기의 병행 지도가 대체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 매체의 활용에 있어서는 약 48%가 수업 시간에 매체를 사용한다고 응 답했으며, 52%는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수업 매체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음반이 50% 정도로 가장 많았고, 비디오나 DVD가 21.3%를 차지한 반면 파워포인트나 빔 프로젝트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각각 4.4%와 5.5%에 그쳤다.

셋째, 강사의 열의나 수업 시간 준수 등의 질문에도 대다수가 긍정적인 응답을 해, 강사도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수강생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선택한 이유인 '강사의 질'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사의 중요한 자질로도 '열성적인 지도'가 32%, '전문적 음악기술'이 27.5%, 음악 교사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이 24.5%로 고르게 선택해 어느 한 가지 기술이나 특성보다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멀티형 강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과정 운영은 크게 수강생의 선발과 교육시간, 교육환경, 교육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평생교육원의 취지에 맞게 62.5%의 수강생은 별도의 시험 없이 수강신청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선발 조건이 없이 수강한 응답자들은 선발조건의 필요성에 대해서 70.4%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긍정적인 대답을 보인 응답자 보다 약 2.5배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선발 조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강생들은 그 이유로 '수준별 수업 요구'(73.0%)를 가장 많이 뽑아 현 수업에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있는 수강생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강좌의 편성시간에 대한 질문으로는 85.5%가 '적절하다'고 응답해 편성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하는 편성 시간으로는 평일 오전과 오후가 전체의 90% 이상으로 수강생의 대다수가 주부 수강생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환경 면을 살펴보면 적절한 교육 시설의 제공 유무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는 응답이 50.5%로 나타나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내의 시설 활용 유무도 '예'라고 답한 사람이 63.5%로 절반 이상의 수강생이 대학 내의 시설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수업 후 평가 방법 및 내용을 보면 수강생에 대한 평가는 약 60%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약 40%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해 약 1/4정도의 수강생들이 평가 없이 수업을 마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

가 방식으로서는 ‘발표회’가 48.3%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수업 중 교사의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22.9%로 뒤를 이었고 특별한 시험 없이 ‘출석’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14.4%를 차지하였다.

여섯째, 프로그램에 대한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주관식으로 이루어진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원하는 개설과목·좋았던 점·문제점·개선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악기 레슨’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뒤이어 공개 레슨 음악이론 등 ‘다양한 교과목의 개설’과 ‘반주법’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평생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좋았던 점’으로 음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의 형성,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음악적 동기’에의 충족에 대한 만족감을 들었다. 이러한 ‘음악적 동기’ 외에도 ‘자기 발전’, ‘여가시간의 이용’과 같은 ‘개인적 동기’의 실현에 대한 만족감과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소속감의 획득 등과 같은 ‘사회적 동기’의 충족도 좋았던 점으로 꼽았다. 참여한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연습실의 부족’이나 ‘좁은 강의실’등 평생교육원의 시설 면에 대한 문제를 주로 지적했으며, ‘개설과목의 부족’, ‘단순한 프로그램’등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와 강사에 대한 문제도 일부 지적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중급반의 신설’과 ‘수업인원을 줄였으면’하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일곱째, 연령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의 결과 많은 부분에서 연령간의 요구와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 대학부설기관을 선택한 이유, 교육과정, 강사의 자질 등에서 각각의 연령그룹은 서로 다른 응답을 보였다.

IV. 결 론

인구의 고령화, 정보화 사회의 도래, 직업 세계의 변화 등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음악은 그 기능과 역할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

교육을 모두 마친 성인이 학교로 돌아가 음악을 배우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회는 공교육을 마친 사람들의 음악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음악교육의 환경을 제공해야한다. 특히 대학은 대학의 시설과 인력을 바탕으로 보다 풍부하고 질 높은 음악교육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학은 평생교육원에 음악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으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많이 뒤처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음악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음악 프로그램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수강생은 대학을 졸업한 주부로 직업과 성별 면에서 상당히 편중된 결과를 보인다.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 또한 평일 낮 시간대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기간도 16주 주 1회를 기본으로 하는 일률적인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편성은 프로그램 참여자의 폭을 상당히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은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수강생들은 대체적으로 강의의 내용과 방법에 만족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강의계획서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으로, 수강생들은 대체적으로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다만 수업 매체의 활용에 있어서 절반 정도만이 수업 시간에 매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강사의 매체 활용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업 매체를 활용하는 강사의 절반이 음반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수업 매체 활용이 음반에 지나치게 편중된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기자재의 활용이 요구된다.

셋째, 강사는 열의나 수업 시간 준수 등의 질문에 대다수가 긍정적인 응답을 해, 강사도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수강생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선택한 이유인 ‘강사의 질’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사의 중요한 자질로도 ‘열성적인 지

도'와 '전문적 음악기술'등을 고르게 선택해 어느 한 가지 기술이나 특성보다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멀티형 강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과정 운영을 보면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원의 취지에 맞게 대부분의 수강생은 별도의 시험 없이 수강신청 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강생은 선발 조건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선발조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강생의 약 70%는 그 이유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요구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현 수업에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있는 수강생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즉 수강생들은 수준에 따른 수업을 원하면서도 선발이라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수강생들은 수준에 따른 수업을 원하면서도 선발이라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수업 후 평가 방법 및 내용을 보면 수강생의 평가는 약 60%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가 없이 수업을 마치는 경우도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질 높은 수업의 전개를 위해서는 좀 더 평가 면에 관심을 두어 수강생의 학습을 촉진 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여섯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면 수강생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설과 프로그램 면이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앞서서 교육 시설에 대체적으로 만족을 나타냈으나 잠재적으로는 강의실과 연습실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질 높은 수업을 위해서는 음악 교육을 위한 별도의 음악실 설치를 비롯한 시설 면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수강생들은 가창과 기악 연주에 치중되어 있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의 개설을 요구 하고 있으며, 중급반의 신설과 같은 수준별 수업과 심화 수업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일회적이고, 연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나의 음악 프로그램이 수준별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든지, 보다 심화된 과정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없어, 한 학기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반 과정의 음악 프로그램도 좀 더 세분

화하고, 연계적으로 구성하여 보다 질 높은 수준의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수준별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진행은 선발 조건이 있는 것이 대한 대다수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할 때 시험에 의한 선발 보다는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이수를 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연령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의 결과 많은 부분에서 연령간의 요구와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많은 부분에서 연령 집단 간의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노년기에 속하는 집단도 활발하게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정작 노인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하다. 따라서 각각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요구와 수준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차원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의 변화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음악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가치는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공교육을 벗어난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음악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2002). **평생교육백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유신 (2002). **여자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목적과 교육프로그램 비교 분석**.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화수 (1996). **평생교육으로서의 사회 음악교육 진흥의 필요성과 현장 분석 연구: 서울지역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권이중 외 (2001). **평생교육 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권이중, 이상오 (2001). **평생교육-이론편**. 서울: 교육과학사.
- 노선영 (1999).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림영철, 림광영 (2001). **평생교육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 엄주정, 김정호 (2001). **평생교육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서울.
- 여정희 (2002).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중심 평생교육 요구 분석**.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 윤성은 (1998). 서울소재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현황조사. **교육연구**, 16, 1-33.
- 이영호 (2004).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서울: 도서출판 원미사.
- 이현청 (1994). 21세기 한국 대학평생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대학사회교육협회 세미나**, 3, 1-17.
-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최항석 (2000). 성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성인교육학회**, 3(3), 1-15.
- 한상훈 (2001). 대학 평생교육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발전논총**, 22(2), 79-101.
- 허작 (2001). 성인교육과정 구성요소: 목표·내용·방법의 실제. **교육발전**, 20(1), 1-18.
- Abeles, H. F., Hoffer, C. R., & Klotman, R. H. (1994). **음악교육의 기초**. 방금주 역. 서울: 음악도서 삼호출판사.
- Hoffer, C. R. (1996). **음악교육론**. 안미자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Lenohard, C. & House, R. (1992).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안미자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Hamann, D. L. (2000). Getting the big picture. *Music Educators Journal*, 87(3), 17-18.
- Hookey, M.(2002). *Adult education*. In Don D. Coffman (Eds), *New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Reston, VA: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199-209.
- Ernst, R. (2001). Music for life. *Educators Journal*, 88(1), 47-51.
- Smith, M. V. & Haack, p. (2000). The long view of lifelong learning.

Music Educators Journal, 87(3), 28-33.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http://ncle.kedi.re.kr>

<http://www.dankookcec.ac.kr>

<http://www.duksung.ac.kr/~adult>

<http://www.smu.ac.kr/dept/edu1>

<http://www3.ssu.ac.kr/lle>

<http://campus.uos.ac.kr/uosedu/>

<http://home.ewha.ac.kr/~sce>

ABSTRACT

The Status of Music Education in Annex Lifelong Education Centers in Universities

Yoon Jin

The purpose of research aims to present desirable directions of music programs in annex lifelong education centers in universities and of the improvement of them through investigating the status of the institu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let 250 participants in the annex lifelong education centers in 6 universities at Seoul reply a questionnaire, and perform statistic process using SPS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participants in the lifelong education are housewives, which means there is preponderance in participants' occupations and genders. Time tables of the programs are biased to daytimes on weekdays. For this reason, the programs do not accommodate participants from various classes. The length of the educational courses is uniquely once a week during the whole 16 weeks of education.

Second, considering the curriculum, the participants a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courses, and the courses proceed according to the syllabuses. The participants have replied affirmatively about the understanding of the contents of the courses. However, for the use of educational media, only about half of the participants have replied that the educational media are used in class,

which suggests a low degree of lecturers' use of the media.

Third, the lecturers have replied affirmatively to the questions about enthusiasm and observation of class time, which shows that they lead class faithfully. Furthermore the participants appear to want versatile lecturers with high teaching quality talents rather than to want lecturers with a simple teaching technique and property.

Fourth, considering the management of courses, the centers let the applicants participate in the programs without any placement tes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lifelong education. Most of the participants reply negatively about the necessity of entrance limitation, but 70% of those participants who replied affirmatively give the reason that classes should be divided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participants. This means that the participants want level-oriented class but show negative attitude to the entrance test.

Fifth, only 60% of the participants have replied that the evaluation is performed, which means that 40% of the courses proceed without evaluation. Thus, more interest should be attached to evaluation for the development of high quality class.

Sixth, the participants point out the sides of facilities and programs as the most serious problems. This result conflicts with their anterior replies but suggests that most of the participants are potentially not satisfied with lecture rooms and practice rooms. They also require more various music programs, but have negative attitudes against those programs biased to the part of singing and the performing instrument. Partly, there is need of level-oriented classes and deepened classes such the establishment of advanced level classes.

Keywords : lifelong education, music lifelong education